"폭력시위 참여단체 보조금 중단"

광주시의회 진선기의원 조례제정 검토

노동·농민단체 등 강력 반발 논란 예상

광주시의회 진선기 운영위원장이 폭력·불법 시위단체에 대해 보조금 지급 중단을 골자로 한 조례 제정을 검토 중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진 위원장은 4일 "지난달 22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반대 운동본부가 광주시청 건물을 파손하고 직원들에게 피해를 준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법원이 폭력시위자들에 대해 유죄 확정 판결을 내릴 경우 시위자들이 속한 단체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급 중단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진 위원장은 이와 관련, 폭력·불법 시위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중단 등을 골자로 한 조례 제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 위원장은 또 "토론회와 여론 조사 등을 걸쳐 명분이 갖춰지면 이를 추진할 것"이라며 "빠르면 올해 내에 조례가 제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 위원장은 특히 "현재 민주노총 광주본부의 경우 임대료 3억원에다 연 960만원의 보조금을 광주시로부터 지급받고 있다"며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불법시위 혐의로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을 경우 보조금 지급을 중단해야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같은 진 위원장이 생각은 전체 시의원들의 생각을 반영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해당 단체들의 반발도 거셀 것으로 예상돼 조례 제정까지는 난항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한 시의원은 이와 관련 "처음 듣는 얘기여서 뭐라 말하기는 힘들지만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안이다.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4일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내년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진 위원장은 민주노총에 대한 임대료 환수와 보조금 지급 중단을 제안했으나 다른 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노동, 농민단체 관계자들은 시위가 발생한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갈등을 증폭시키는 발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동당 광주시당 윤민호 정책실장도 "노동자와 농민들의 FTA 반대 등 생존권 주장에는 귀기울이지 않고 외형상 나타난 시위양태를 가지고 선·악을 구별하는 일차원적인 사고 방식"이라며 "보조금 지급 중단 발상은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와 관련 단체간의 갈등과 불신을 증폭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사회 버팀목 '중산층'이 엷어진다

가구주 53% "나는 중간층"… 3년전보다 2.8% 감소

■ 2006 사회통계 조사

사회경제적인 지위가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반면, 하류층에 속한다고 느끼는 비율이 높아지는 등 사회 계층의식에서도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또 자칭 중산층과 하류층 가운데 10명 중 3명은 다음 세대에도 '가난의 대물림'이 이어질 것으로 인식했으며, 국민 10명중 1명 이상이 생활고 등을 이유로 지난 1년간 자살 충동을 느낀 것으로 조사됐다. 〈관련기사 5면〉

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06년 사회 통계조사결과'에 따르면 소득과 직업, 교육, 재산 등으로 고려한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중간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전체의 53.4%였고, '하층' 45.2%, '상층' 1.5% 등이었다.

이는 3년 전인 지난 2003년 조사 당시 '중간층' 56.2%, '하층' 42.4%, '상층' 1.4% 등에 비해 '중간층'은 2.8% 감소한 반면 '하층'은 2.8% 늘었다. 3년간 '상층'이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수 '중간층'이 '하층'으로 고스란히 옮겨간 셈이다.

또 중·하층 10명 중 3명은 가난의 대물림이 이어질 것이라고 판단했다. 중·하층 응답가구 가운데 '다음 세대에서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경우가 각각 28%, 30.8%에 달했다. 이는 3년 전보다 각각 9.5%, 8.6% 높아진 것으로 계층간 이동에 대한 인식이 3년 전보다 크게 악화됐음을 나타낸다.

이와 관련, 지난 1년간 15세 이상 인구의 10.3%가 자살 충동을 느낀 것으로 조사돼 충격을 주고 있다. 자살 충동요인으로는 경제적 어려움이 48.2%로 전체의 절반에 달했으며, 가정불화(15.4%), 외로움(12%), 질환 장애(8.2%), 직장 문제(6%) 등의 순이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병사 10명 중 1명 "軍생활 부적응"

편집증·대인민감성 등 느껴

병사 10명 중 1명이 군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으나 이들을 가려내거나 적응을 도와줄 장치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4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이화여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병무청, 육군훈련소, 육군 7개 부대를 방문해 병사 940명을 대상으로 간이 정신진단검사를 실시한 결과 103명(10.96%)이 편집증과 적대감, 대인민감성 등을 느끼고 있는 부적응자로 나타났다.

부적응 병사 103명에게 원인을 중복 선택하게 하자 49명이 '선임병과 갈등'을 꼽았고 '비합리적인 군대문화(47명)', '고된훈련(30명)', '부당명령 및 처벌(29명)', '제대 후 진로부담(22명)' 순으로 응답했다.

/연합뉴스

韓-印尼 대통령 대화 노무현 대통령과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4일 오전 자카르타 대통령궁에서 열린 정상회담장으로 이동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빛日만평 - 김종두

'숙려기간' 이라고 생각하세요

광양시·해남군 '복지수준' 높아

복지부, 지자체 226곳 평가

광주·전남지역에서 광양시, 해남군, 목포시, 광주 남구와 북구 등의 복지 수준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11월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이 평가 결과, 최우수 지자체에 이은 복지 우수 지자체로 서울 서초구, 경기 수원시 등과 함께 광양시와 해남군이 각각 선정됐다. 장려부문에는 서울 영등포구, 대전 유성구 등과 함께 광주 남구가 뽑혔다. 분야별 우수 지자체로는 복지총괄분야에서 광주 북구, 노인 복지는 목포시가 각각 최고점을 받았다.

이에 반해 복지 수준이 낮은 지자체로는 대구 달성군, 경기 군포시, 경북 울릉군 등과 함께 고흥군이 지적됐다.

복지부는 이 같은 평과 결과를 토대로 종합부문 최우수 지자체에 1억2천만원, 우수 지자체에 1억원, 장려 지자체에 8천만원을, 부문별 우수 지자체에 750만원을 각각 지원했다.

수도권 개발억제 위한 '기반시설부담금'

광주·전남엔 '毒'

전국 모든건물 일괄적용
축사에도 수백만원 부과

정부가 무분별한 개발을 억제하고 기반시설 구축 재원을 확보한다며 8·31 부동산 대책의 하나로 시행하고 있는 기반시설부담금제도가 광주·전남지역민들에게 오히려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애초 수도권 개발 억제를 명분으로 했던 이 제도가 지역에 관계없이 전국 모든 건물에 일률 적용됨으로써,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 농·어민들에게도 수십만~수백만 원씩의 부담금이 부과되는 등 부작용이 잇따르고 있는 것.

4일 건설교통부와 전남도에 따르면 이 제도가 시행된 지난 7월12일부터 10월31일까지 전국적으로 7천647건, 부과대상면적 274만 평에 대해 모두 1천47억 원의 기반시설부담금이 예고됐으며, 전남에서는 279건 6만218평에 대해 12억6천400만 원의 기반시설부담금이 예고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527건(15만6천 평)에 347억5천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가 1천961건(46만2천 평)에 238억2천만 원을 기록, 두 개 시·도에서 부과된 부담금 예정액이 전체의 절반을 넘었다. 이어 충남이 719건(57만3천 평)에 98억 원, 전북 373건(13만5천 평)에 56억 원, 인천 242건(8만 평)에 44억 원 순이며 대전이 123건(1만2천 평)에 5억3천만 원으로 부과액수가 가장 적었다.

그러나 기반시설부담금제도가 60평 이상의 전국 모든 건물에 일률적으로 적용됨으로써 개발이 상대적으로 뒤떨어진 전남의 개발을 오히려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빚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함평군 월야면의 한 버섯재배 농가의 경우 최근 407평의 버섯재배장을 지으면서 698만 원의 기반시설부담금 예고통지를 받는 등 농업에 필수 시설인 축사 등을 짓는데도 수십~수백만 원의 부담금이 부과되고 있는 실정이다.

건설교통부는 이에 따라 이번 주 내에 농업생산시설을 기반시설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기반시설부담금이란=60평(200㎡)을 초과하는 신·증축 건축행위에 대해, 건축허가 시점에서 도로 등 기반시설 유발 비용을 개발업자에게 물리는 제도다. 즉, 개발행위에서 비롯된 이익 중 일부를 국가가 해당 사업자로부터 환수하겠다는 얘기다.

국세청장 "종부세 위헌 가능성 없다"

전군표 국세청장은 낮은 보유세 부담이 부동산을 투기의 대상이 되도록 했다고 진단하고 보유세와 양도세가 정상화되면 다주택자들의 보유매물 출회로 여러개의 신도시를 공급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군표 국세청장은 4일 오전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들과의 화상회의에서 "종부세는 보유세를 정상화한 의미있는 세제"라며 "종부세 도입으로 과세의 형평을 이루고 불요불급한 부동산 보유를 억제할 수 있게 됐다"면서 신고업무의 차질없는 집행을 당부했다. 전 청장은 아울러 종부세 제정 당시 헌법학자 등과 검토한 결과 종부세는 재산세 납부세액 중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액 전액을 공제해줘 이중과세가 아니고, 세대별 합산과세도 합리적 이유가 있는 정당한 차별이므로 종부세는 위헌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연합뉴스

光州日報 광고접수안내
구인·구직·분실·모집·초빙·영업·모임
사설학원·입학·등록금·개업·인사·전세·분양
◆입금은행: 광주은행 ◆예금주: (주)광주일보사
·직통:(062)227-9600 ·FAX:227-9500

분 실
아파트 분양공급계약서
순천시 조례동 550
남양휴튼 103동 1103호
계약자명 김금단
상기 계약서를 분실 공고함.

아파트 분양계약서
광주시 남구 봉선동
한국아델리움아파트 106동 702호
계약자명 유한둘
상기 계약서를 분실 공고함.

정우부동산
☎(代)675-4788~7 핸 011-603-4788
(봉선동 한일병원부근)

건물매도
·외곽도로변 한일병원부근 대지120평 약400평 지하1층, 지상5층 매매가13억 임대보증금 약2억 월450만원
·외곽도로변 대지84평 건평 약300평 지하1층 지상5층 매매가8억 보증금 약1억300만원 월380만원

토지매매
·주월동 한일병원부근 대지 약100평 매매가 2억2천
·봉선동 라인하이츠 입구 부근 대지 약185평 매매가 4억4천만원
·외곽도로 기업은행부근 대지 약125평 매매가 평당550만원
·월산동 외곽도로 대지 약160평 35m×10m도로코너 평당450만원
·인성고 후문부근 대지 약204평 평당 120만원
·남구 이장동 주거지역 약400평 평당60만원

임야매매
·남구 도금동 임야 약21000평 약6억 2차선도로부근
·담양고서 지목임야이나 현재 거의 대부분 전으로 사용중 평당5만원

생산녹지
·서구 치평동 답 약500평 4차선도로접 평당250만원

한자한문지도사 자격 연수생모집
1. 연수일정 [제2기]
• 개강일시 : 2006. 12. 28(목) 09:30
• 모집기간 : 2006. 12. 5~28일까지
• 수업기간 : 2006. 12. 28~2007. 4월(4개월 15주)
• 수 강 료 : 210,000
모집과정인원: 1단계과정 오전반, 오후반 각20명(선착순)
수업시간
• 오전반(매주 화, 목)09:30~12:30(3강좌)
• 저녁반(매주 화, 목)18:40~21:30(3강좌)
수료후 특전
• 1, 2단계 연수과정 이수시 : 수료증 수여(총장명의)
• 한국대학부설평생교육원협의회 자격증 취득기회부여(해당과목)
• 각 한문학원 강사 추천
• 각급학교 특기적성교육 강사 추천
2. 원서교부 및 접수처
광주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KWANGJU WOMEN'S UNIVERSITY
• TEL(062)950-3584, 3585, HP.011-614-4160

철저한 독일인의 장인정신
중고구형보청기를 신형으로 교환판매(타사 보청기 환영) 세계최첨단
독일보청기 9채널방식 100%디지털고막형
•전화소리가 선명하게 들립니다. •말소리가 정확하게 들립니다.
•음향이 특효과가 큽니다. •잡음을 자동적으로 제거합니다.
•신경성 난청에 큰도움이 됩니다. •반영구적입니다.
•피드백 현상이 제거되었습니다.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독일보청기백화점
광천터미널 건너편 6층(광명빌딩603호)
☎062)222-1510 011)573-5106

전원주택지분양
(150평~250평)
화순읍 근교(5분거리)
허가필(건축가능)
남향 전망좋음
가격 전화로 결정
☎061)375-8821,011-629-6051

산행안내

LC타워(주)
☎(代)972-8004, 핸.010-7154-6996
첨단지구 LC타워
첨단 최고의 요지 최적의 조건으로 임대합니다.
★일일 유동인구 1만명이상 ★유명메이커 운집
◎각종학원임대◎ 50~90평
라이브 홀 임대 222평
【각층분할가능】
병·의원 임대 3층:88평, 212평 안과, 피부과, 신경외과, 성형외과
학원및 사무실 임대 30~90평 평수 다양 보유
스카이 라운지 5층:222평 스카이라운지, 훼밀리레스토랑